

# 제5회 군산새만금 장애인 예술제 '동행'

장애인·비장애인 예술동호회 8개팀 참가 다채로운 문화공연 선보여

군산 장애인 예술제인 '제5회 군산새만금 장애인 예술제'가 17일 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새만금 장애인 예술제는 '동행'이라는 주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예술동호회 8개팀이 참가했다.

'생동감'이라는 장애인 전문 공연팀의 LED 트로센스와 'F.O.M.크루' 팀의 장애인 B-BOY 춤으로 꾸며진 공연은 신체와 언어의 제약을 뛰어넘어 예술로 승화해 그간 접하지 못했던 색다른 문화공연이 됐다.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모드니합창단', '하모니톤차임' 팀의 합창과 톤차임공연, 전북농아인협회 '손빛' 팀이 꾸미는 수어합창을 비롯해 이화어린이집 '드림' 아동들의 뮤지컬 공연 등 다채로운 음악공연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이 밖에도 희망나눔주변보호센터 '희망드림'의 난타공연, 열린터어린이집 '꼬마요정' 팀이 꾸미는 발레공연과 군산연합회 소속 회장단과 YMCA합창단의 가곡합창은 장애인 예술제의



군산 장애인 예술제인 '제5회 군산새만금 장애인 예술제'가 17일 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번 예술제를 준비한 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장애인예술제를 통해 장애인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생각들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번 예술제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개발하고 표출하는 예술공연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낮추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장애인들이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전주대학교 박물관과 (사)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는 지난 14일 '선조들의 삶 속에 깃든 마음(心)'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시를 개최했다.

## '선조들의 삶 속에 깃든 마음' 특별전시

전주대 박물관·전북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 이벤트 등도 진행

전주대학교 박물관(관장 김건우)과 (사)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회장 박현수)는 지난 14일 '선조들의 삶 속에 깃든 마음(心)'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별전시는 전주대학교 박물관과 (사)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며, 전북도가 후원하는 것으로, 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에 소속된 정읍시립박물관, 김제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원광대학교 박물관 등이 연합해서 진행하고 있다.

김건우 박물관장은 "조선시대 유교문화 중심지인 전주에서 선조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를 많은 분들께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시대의 사랑방, 안방, 부엌 등을 다양한 유물을 통해 재현했으며, 선조들의 생활상과 온기가 남아있는 주거공간도 보여주고 있다.

박현수 회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선조들의 삶이 묻어 있는 공간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전시와 함께 정통 복식인 한복을 입을 수 있는 이벤트와 한복키링 방향제 만들기 등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전시 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 전주대학교 박물관(대학 본관 3층)에서 진행되며, 관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20-2158)로 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 전북대 도서관, 장애 인식 개선 위한 장애작가 초청전

고정희·박선진·이유빈 작가 초청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전시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이준영)은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이를 극복하고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을 초청해 전시를 마련했다고 17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중앙도서관 1층 전시공간에서 '2022 전북지역 장애작가전'을 개최한다.

국립대학육성사업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고정희, 박선진, 이유빈 작가가 참여해 총 19점의 미술작품이 전시된다. 이는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과 부안장애인복지관, 군산장애인복지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전북대 도서관은 유독 장애에 대한 편견과 지역민 문화 격차 해소 등에 큰 관심을 갖고 최근까지 다양한 전시를 마련해오고 있다. 최근 청각 및 시각 장애를 딛고 일러스트 작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의 헬렌켈러' 구경선 작가 초청전을 비롯해 정유정 작가 북콘서트, 지역민 대상 문화기행 등을 잇달아 열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학생에 대한 출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과 학습 상담 지원, 그리고 장애 학생들을 위한 책 배달 서비스 등 장애 이용자를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해오면서, 지난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실시한 '제14회 도



고정희 작가 '사랑꽃바구니'

서관 장애인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공모'에서 사람 중심의 도서관 환경 및 서비스 개선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전북지역 장애작가전 역시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와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시각의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3명의 초청 작가들은 각각 지니고 있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작품 활동을 통해 사회적 화두와 새로운 희망을 던지고 있어 많은 이

들에게 작품을 통한 감동과 메시지를 안겨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원 상설공연 진행 단체 모집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영환, 이하 재단)은 2023년 태권도원 상설공연을 진행할 단체를 모집하며 오는 29일까지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통해 진행한다.

2023년 태권도원 상설공연 운영 영역의 과업 내용은 태권도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T1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상설 태권도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특별공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입찰 자격으로는 태권도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형 공연 연출과 운영이 가능한 업체면 어느 단체나 참가 할 수 있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한편, 영역에 대한 입찰마감은 11월 29일 오전 10시까지로 전자입찰만 가능하며, 제안서는 입찰마감일 오후 2시까지 재단을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입찰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태권도진흥재단 누리집(www.tpf.or.kr) 입찰공고 페이지와 나라장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전주공예품전시관, '호사원'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자체 개발한 캐릭터인 '호기로운 호사원'의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18일 오후 2시부터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호기로운 호사원'은 민화 속 까치호랑이를 모티브로 제작된 MZ세대 호랑이 캐릭터로, 지난 9월부터 공예문화를 알리기 위해 자체 개발됐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이모티콘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담았다. 이모티콘 속 호사원은 익살스러운 동작으로 공예품을 소개하며, 일상 속 대화 곳곳에 공예문화를 자연스럽게 녹여내게 했다.

호사원 이모티콘은 △옷칠 수저를 들고 점심 시간을 알리는 이모티콘 △도자 머그컵을 들며 티타임을 요청하는 이모티콘 △지우산으로 쏟아지는 업무에 맞서는 이모티콘 등 총 16종이다.

이모티콘은 '전주공예품전시관'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2만5천여 명에게 무료 배포되며, 다운로드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 가능하다.



기존 전주공예품전시관 카카오톡 채널 이용자는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편,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공예품전시관 현장에는 호사원 조형물 16종이 곳곳에 배치돼 호사원 포토존으로 인기가 있다.

김도영 원장은 "호사원 이모티콘을 통해 공예문화가 대중의 일상에서 친근하게 활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호사원을 통해 공예를 알리고 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홈페이지(jonjucraft.or.kr) 또는 공예문화산업팀(063-281-1610)에게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